



최 협회장, 팟캐스트 출연 “치과의료 정의 바로 세울터” CBS 방송 ‘건강 솔까말’ 출연

최남섭 협회장과 이정욱 치협 홍보이사가 7월 30일 CBS 방송국에서 팟캐스트 ‘건강 솔까말’에 출연했다.

치협과 서울지부가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CBS 팟캐스트 ‘건강 솔까말’과 협약을 맺고 출연을 결정한 후 첫 녹음이 진행됐다.

최남섭 협회장과 이정욱 치협 홍보이사가 30일 CBS 방송국에서 변춘애 전 방송위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건강 솔까말’에 출연했다.

이번 팟캐스트 출연은 치과계 정책과 구강건강 정보 등을 국민에게 알리므로서 국민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남섭 협회장은 “치협은 국민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치의학

연구, 치과의료 정책 개발 연구, 회원 복지를 위한 사업 등을 하는 곳”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치협’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국민과 치과의사가 상생하고 치과의료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 최 협회장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등 극단적인 이윤추구의 결과가 어떠한지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회 녹음 분은 팟빵 홈페이지(<http://www.podbbang.com/>)에서 ‘건강 솔까말’을 검색해 들을 수 있다.



치의신보 “독자들이 기다리는 신문으로 만들 것” 공보위원회 초도 회의서 치의신보 발전전략 논의

치협 공보위원회(위원장 최치원·이하 공보위)가 정론직필을 바탕으로 2만 5000여 독자에 스며들어 기다려지는 치의신보를 제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공보위가 7월 24일 안민호 공보 담당 부회장, 최치원 위원장을 비롯한 공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보위에서는 치의신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성공적으로 정착된 치의신보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덴탈’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론칭한 데일리덴탈은 1일 방문자 수가 3500여명에 육박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치의신보는 앞으로 독자들의 개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의 기사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판인 데일리덴탈에는 동영상 학술메뉴 다양화를 지향하는 한편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칼럼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정부, 국회, 보건 의료계 정책 분석 및 비판 기사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치의신보 기자 자질 향상과 재정 안정을 위한 방안 모색과 전국 공보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치의신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도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공보위 회의에서는 공보위원들의 치의신보 발전을 위한 기감 없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세대를 아우르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코너를 치의신보에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개원가 삶이 녹아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기획기사 등을 통해 기다려지는 신문을 만들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윤희삼 위원은 “치의신보가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더욱 노력해 젊은 치과 의사들과의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그 방안으로 치협의 정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코너를 치의신보에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정호 위원은 “치의신보 슬로건이 기다려지는 신문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기다려지는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보 제공보다는 기획, 연재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치의신보에 연재되고 있는 학술 임상코너가 좋은 예로 중장기적 기획 코너를 마련하면 열독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최치원 위원장은 “치의신보가 나가야 할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 준 공보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회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치의신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민호 공보담당 부회장은 “치협에 중요하지 않은 회무가 없지만 공보위원회는 여러 현안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중요한 위원회 중 하나”라면서 “더욱 발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치과계 보험 이끝자"... 임플란트 급여·청구 팁 '알찬정보' 공유 치협 건강보험 연수회... 시도지부 보험이사 등 30여명 참석

전국 시도지부 치과보험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시행된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를 비롯해 각종 청구 팁 등 알찬 보험정보들을 공유하며 향후 보험정책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7월 19일, 20일 이틀간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시도지부 보험담당 부회장과 보험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건강보험 연수회'를 가졌다.

이날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마경화 치협 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는 급여적용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해 세부사항들에 대해 꼼꼼히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마경화 부회장은 특히 치료재료와 관련해 "급여 대상 환자에게는 반드시 '치료재료 급여 및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해야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마 부회장은 회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치료재료 급여 청구와 관련해서도 "등재된 치료재료 급여 상한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 실구입가를 기준으로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청구 시 거래명세서 또는 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토

록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박경희 보험이사는 재시술과 관련해 "골 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의 재시술의 경우 1회에 한해 가능(재시술에 대한 수가산정은 2단계(고정체 식립술) 소정점수의 50% 인정)하다"며 "이에 급여 적용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통해 해당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각종 임상케이스별 적용 여부 등 참석자들의 궁금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각종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다.

이어 둘째 날에도 박경희 보험이사의 '알면 힘이 되는 보험청구의 팁'을 주제로 주요 상병명별 청구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치협 보험위원회 중점사업인 건강보험 교육 활성화와 상담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보험위 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등 교육연자와 상담자 인력풀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회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치의학회 "학회 간 학술활동 편차 개선 필요" '치의학사전' 출간 이병태 원장 공로패 수여

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이하 치의학회)가 2014년도 2회 정기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을 갖고 치의학회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이하 치의학회)가 2014년도 2회 정기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을 갖고 치의학회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7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충주 더베이스호텔에서 진행된 정기이사회 및 워크숍에서 치의학회 임원들은 ▲분과학회 연회비 책정 방법의 건 ▲치의학 사전 발간 공로 인정에 관한 건 ▲분과학회 활동 관리에 대한 활동 제한 등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4월 '영리한 이치의학사전'을 출간한 이병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병태 회장은 40여 년간 사전집필에 매달려 16만여 단어가 수록된 치의학 사전을 발간, 한국 치의학 발전에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 김철환 학술이사는 워크숍에서 '분과학회 활동 관리에 대한 활동 제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운영하는 학회는 2개이며, 6호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 학회는 6개, 분과학회의 연간 발간 논문의 수는 829편, 학술대회는 54회 개최 등의 현황(작년 기준)을 보였다.

김철환 이사는 "학술 활동이 미미한 학회를 적절하게 규제, 독려해 치의학계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우 회장은 "개원환경 악화, 구조조정 등 어려운 상황에서 치대 일부 교수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래저래 힘든 상황에서 훌륭한 분들과 함께 치과계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